

도시의 술집과 야생의 덧을 인류학적으로 유비하기*

홍성훈**

이 연구는 도시의 술집이 안팎으로 사람들을 홀리며 작동하는 원리를 야생의 덧과 유비해 분석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유비의 큰 쓸모를 인류학적으로 제안하고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덧에 설계된 공백은 사냥꾼과 사냥감의 원초적 굶주림이 투기적 기다림으로 충돌하는 미술적 시공간이다. 공백이 사라지는 포획의 순간 서로 다른 사냥꾼과 사냥감은 서로 닮은 사냥꾼과 사냥감으로 함께 거듭난다. 이 야생의 논리를 이유 없이 도시로 끌어들이면 익명의 손님들을 빨아들이기 위해 불확실성이 가득한 거리로 문을 열어두는 술집의 생존 전략을 덧의 원격 작용과 굳이 묶어 설명하는 이유를 해명할 수 있게 된다. 도시의 서로 다른 사람들은 술과 함께 황홀한 술집에서 서로 닮은 인류로 거듭난다.

〈주제어〉 유비, 도시, 야생, 술집, 덧, 미술, 과학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017).

** 삼성디자인교육원 인류학 강사, why@anthropology.city

1. 유비

무리(類)와 무리를 서로 견주어 보는 유비(類比)는 하나의 무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오히려 바깥의 다른 무리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독특한 지적 작업이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 일관된 논리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이나 귀납과 달리 서로 다른 대상들의 난데없는 충돌을 사고의 동력으로 삼는 유비는 그 추론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질성의 마찰 탓에 필연적으로 개연적인 결론을 불확실하게 도출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인류학이 발굴하고 추구하는 사회적 사실의 정도가 확실성으로 측정된다면 불확실성 주위를 맴돌며 활성화되는 유비의 상상력은 한낱 몽상에 불과한 쓸모없는 방법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과학사적 맥락에서 유비의 쓸모는 주로 서로 다른 대상 사이의 유사점을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된다(로이드 2014[1966]: 229-234). 발견 방법과 추론 방식으로서 유비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지만 인류가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한 습관 자체가 유사점의 꼬리에 유사성의 꼬리를 무는 상상력에 기초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Park, Daston, and Galison 1984). 다만 그 인식의 방법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논쟁적으로 제기될 뿐이다.

언뜻 복잡해 보이는 상황은 우리에게 익숙한 놀이를 통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 일단 흥얼거리려 보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그리고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이 관계들의 나열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숭이의 엉덩이가 빨강고 마침 그 옆에 있던 사과도 빨강다고 할 때 과연 원숭이의 엉덩이는 빨간 사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얼토당토아니한 문제제기가 그 자체로 황당하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원숭이의 엉덩이를 흥얼흥얼 빨간 사과에 연결하고 그다음을 어렵지 않게 떠올리곤 한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부차적이다. 조금 더 엉뚱한 누군가는 이미 빨간 사과를

www.kci.go.kr

뉴턴의 사과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 사과와 저 사과 사이에서 원격 작용하는 항상적인 힘의 보편적 원리에 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Hesse 1961).

낮선 곳의 낯선 것을 선제적으로 탐구했던 고전적 인류학자들은 자신들의 과학적 사고와 다른 수준에서 펼쳐지는 저급한 원시적 사유의 중요한 특징으로 유비의 신비로운 사용을 꼽곤 한다(로이드 2014[1966]: 235-239). 예를 들어 아프리카 중북부 지역의 아잔데족은 질병의 이름을 그 증상과 겹보기에 닮은 자연물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들에게 익숙한 피부병의 이름은 그 증상의 겹모습이 코끼리 가죽과 닮았기 때문에 상피(象皮)병이다. 닮음에 근거한 유비적 관계는 단순히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의 차원을 넘어 이미 현상한 현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마술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하지만 야생을 제거한 현대적 관점에서 마술은 과학일 수 없다. 사람의 다리에 생긴 상피병을 치료하기 위해 코끼리 다리를 태운 재의 쪼가리를 활용하는 것이 신비로운 아잔데족에게는 자연스럽지만 합리적인 영국인 인류학자에게는 귀납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명백한 오류이다. 그래서인지 믿음에 충실한 마술의 실제 결과는 대체로 실패하는 것으로 기록된다(Evans-Pritchard 1976[1937]: 486-487).

과학과 마술의 열을 깔끔하게 분리한 후 과학에서 유비를 뜯어내 마술의 열 아래 반듯하게 붙여 정리한 정사각 매트릭스는 에번스-프리처드의 과학적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하지만 다른 세계관을 장착한 인류학자에게 포착되는 또 다른 차원의 과학적 문제는 에번스-프리처드에게 익숙한 그들만의 과학적 관점 그 자체다(Tambiah 2017[1973]: 451-454). 문제에 대한 물음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과학과 마술 가릴 것 없이 유비는 인간의 사유 활동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지 않는가? 사실상 인류에게 보편적인 유비적 사고와 행위를 귀납과 입증의 기준으로 구축한 특정 과학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좁게 정의된 과학 안에서 설정된 인과관계를 통해 사태를 분석하려는 방법의 전제가 그 자체로 잘못된 가정일 수도 있

지 않을까?

물음의 근거는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왜냐하면 과학도 마술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유비를 활용하기 때문이다(Ruse 1973). 자연학의 근대 과학적 혁명을 이끈 갈릴레오는 달을 은쟁반으로 지구를 움직이는 배로 설명한 유비의 달인이었다(Daston 1984: 302-306). 과학과 마술은 모두 유비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다. 다만 활용의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다. 마술이 유비로써 현실을 설득해 사태의 실제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면 과학적 유비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의 모델을 만들어 관찰과 입증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따고 싶다고 할 때 마술은 별과 닮은 대상을 찾아 주문을 건다면 과학은 별과 닮은 대상을 모델로 재현해 거리를 측정하는 식이다.¹

2. 닮은 다름

무리와 무리를 비교하기 위해 닮음을 활용하는 유비는 마술로서든 과학으로서든 언제나 닮음이 다름이 되어 틀림으로 판명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Lloyd 2017: 241-249). 왜냐하면 닮음은 애초부터 같지 않은 것으로서 다름이 포함된 “닮은 다름”²이기 때문이다(Lévi-Strauss 1991[1962]: 77-78). 비교

1 공학적 기술은 현실을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변형한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따고 싶은 공학자들은 마술과 과학을 구별하느라 낭비되는 에너지를 아껴 실제로 별을 따러 가는 우주선을 제작한다.

2 레비-스트로스는 “닮은 다름(the differences which resemble each other)”을 “외적 유사성(external analogy)”과 “내적 상동성(internal homology)”으로 구별한 다음 인류학의 어젠다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이 사용하는 오브제 사이의 구조적 상동성을 밝히는 것으로 설정한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이른바 인문사회과학의 일반적 토양에 뿌려진 구조주의의 혁명적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그 씨앗이 품고 있는 가능성을 레비-스트로스보다 다른 방식으로 음미해보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의 방법을 도구로 삼아 학술적 개념을 만드는 인류학자로서 비교의 예시를 인류로 들어 보면 사람과 사람은 서로 닮아서 인류로 묶이지만 막상 사람들과는 또 서로 달라 각자의 인류로 갈라지기 마련이다. 차원을 달리 하면 인류 안에 인류가 있고 인류 밖에도 인류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논리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앞서 언급한 별에 관한 사고 실험을 한 갈래 늘여 보자. 하늘의 별을 따다. 어떻게? 별과 닮은 것으로? 별과 다른 것으로? 흥미로운 프로젝트의 결과가 어쨌든 실패라고 가정하자. 왜 그랬을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따기에 너무 엉뚱한 대상을 골라 주문을 걸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대상을 재현한 것은 아닐까? 대상이 문제인가? 결국 닮을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때문인가?

원인은 대상도 닮음도 다름도 아닌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다. 엄밀한 디지털 논리의 집합체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행 오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버그(벌레)로 굳어진 유래의 핵심에 정말로 버그(나방)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연결고리가 반드시 튼튼하고 끈끈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사고 실험에서 프로젝트의 결과적 성공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유비를 동력으로 자가발전시킨 상상력의 에너지다. 실험의 엉뚱한 성과는 별을 따는 것이라기보다 차라리 별과 나방의 무차별적 연결이다. 혹시 이 지구 어딘가에 나방을 날려 하늘의 별을 따는 인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고 보니 별과 나방이 묘하게 닮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므로 별은 나방이다? 지금의 과학적 관점에서 얼마나 입증 가능한 연결인지 가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에번스-프리처드가 기록한 누에르족의 토테미즘에서는 쌍둥이가 새다(Lévi-Strauss 1991[1962]: 78-83). 과학적 관점의 시공간적 가짓수를 늘리면 충분히 별도 나방일 수 있다.

유비적 상상력을 환기하기 위해 급조한 별과 나방의 연결이 임의적인 데 반해 누에르족의 세계관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쌍둥이와 새의 연결

은 체계적이다. 그런데 왜 하필 새일까?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대상이 맺고 있는 상대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논리에 주목해야 한다. 논리가 조합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에르족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신과 인간을 소환해야 한다. 에번스-프리처드의 기록을 분석한 레비-스트로스가 제시한 논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쌍둥이는 인간보다 높이 있지만 신보다는 아래에 있는 존재다. 새 또한 마찬가지다. 누에르족의 사고체계에서 쌍둥이와 새는 모두 신과 인간 사이에 놓인 중간적 존재자로서 그 각각의 구조적 관계가 서로 동일시되는 것이다.

나만의 허상일 가능성이 높은 임의적 닳음과 달리 누에르족의 체계적 닳음은 하나의 완전한 세계를 구조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적 사실이자 관습적 상식이다. 체계 바깥에 위치한 인류학자의 관점에서 신비롭게 느껴지는 특별한 모든 것이 체계 안에 위치한 인류의 관점에서는 대부분 특별하지 않고 사실상 특별할 이유도 없다. 마술과 과학의 닳은 다름도 마찬가지다. 체계 바깥의 마술적 유비가 체계들 사이의 충돌을 유도한다면 체계 안으로 들어온 과학적 유비는 언뜻 보기에 특별히 조각난 부분들을 공통의 관점으로 연결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체를 구축한다.

문화에 관한 유비와 비교의 닳은 다름도 마찬가지다. 인류학자의 기본기로 관점의 교환을 요구하는 복잡계 인류학의 관계적 문화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 각자가 속한 세계들의 서로 다른 영역들을 유비로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문화를 만들어 낸다(Strathern 1992: 47-50). 이때 문화는 박물관적 수집이나 분류의 대상일 수 없다. 서로 다른 것의 충돌과 함께 갓 만들어져 말랑했던 문화가 이미 구축된 체계 안에서 허용된 비교를 통해 서로의 상식으로 인정되고 안정화되면서 차츰 관습으로 굳어져야 비로소 수집이나 분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관습의 주변이나 틈새에서는 이따금 체계를 교란하는 신선한 유비가 등장해 엉겁결에 전에 없던 문화의 발명을 촉진한다. 인류학자가 새로운 연구를 통해 지식을 만들어 내는 방식 또한 마찬가지다. 인류학에서 문화는 박물관적 수집과

분류를 위한 객관적 비교의 대상이라기보다 수많은 인류학자가 수없는 인류와 교환한 관점의 주관적 비교가 겹겹이 쌓인 인류학적 유비의 연구 소적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전경수 1993; Hirsch 2014: 48-54).

3. 술집의 도시적 환영

서울의 유행 일번지로 유명해져 북적해진 마포구 연남동에는 “대환영”이라는 이름의 작은 술집이 있다. 유명세의 중심지에서 살짝 비켜난 뒷골목에 자리한 탓에 낯선 사람이 찾아가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주인의 마음은 “#언제나대환영”이란다. 가게 한구석에 잉글리시로 달아놓은 두 개의 네온사인 중 하나는 “big welcome”으로 대환영하고 또 하나는 “big phantom”으로 대환영이다. 그리고 보니 환영(歡迎/幻影)의 뜻이 하나가 아니라서 오히려 재미있다. 누군가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대환영의 권리가 줄지에 누군가를 헛 그림자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구석에 “손님 이리시면 대환영입니다”라고 적어 놓은 농담 섞인 진담에서 전해지는 주인의 의지가 자못 의미심장하다. “손님 이리시면…”에 이 악물고 압축되어 있는 술집의 천태만상이 대관절 무엇이기에 부정 서술어의 자리를 대환영의 무한 긍정이 꿰찰 수 있는지 궁금하다.

새로운 유행에 민감한 어느 패션 잡지는 때마침 이 술집을 여러 술집과 함께 묶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노블레스 2018). “낮술이 당길 때, 단골집”, “주인과 눈인사만으로 안부와 상태를 묻는 곳”, “속세에 치여 녹초가 됐을 때 찾는 곳”, “홀로 누워 있는 저녁 느닷없이 생각나는 곳”, “그렇게 우리가 즐겨 찾는 단골집”. 시물라시옹의 달인들이 한껏 뽐을 내며 늘어놓는 말의 향연 속에서 “대환영”의 “big welcome”과 “big phantom”은 현실의 “손님 이리시면…”과 무관하게 생활, 작업, 사람, 대화, 음악, 영화, 미술, 술, 춤, 공연 등 모든 것이 자연스레 녹아드는 즉석의 유토피아로 수

럼한다.

도시를 인류학적으로 환영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크고 조밀하고 이질적이고 복잡한 탓에 조건적으로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다고 상정되는 도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 나가는 공동체를 발견해 낭만화하는 것이다(Wirth 1938; Finnegan 2007[1989]: 301). 실제로 도시에서 술집은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매우 자발적인 도시인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장소이자 도시의 팍팍한 삶이 주는 스트레스와 고립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의미 있는 사교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안식처로 기능하는 경향이 있다(Richards 1963: 261-268; Dumont 1967: 941-945; Oldenburg 1999[1989]: 20-42; Grazian 2003: 87-124).

도시의 술집이 인류학적 환영³의 잠재적 장소일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무시로 드나들며 서로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장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뉠 수 있다. 주인과 손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탓에 영접결에 찾는 동네 술집이든 동네에서 해소되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 일부러 멀리까지 찾아가는 독특한 술집이든 상관없이 모든 술집에는 어쨌든 술을 파는 주인과 술을 사는 손님이 있지 않을 수 없다(Lee, Antin, and Moore 2008: 69-73).

주인과 손님이 맺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손님에 대한 주인의 영향력을 술집의 규모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대체로 규모가 작은 술집일수록 그 관계의 직접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포장마차나 일본의 선술집처럼 주인장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 술집의 경우

3 인류학적 환영이 극대화된 사례로 “신원을 묻지 않고 보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적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환대”로 정의된 “절대적 환대”를 들 수 있다(김현경 2015). 하지만 절대적 환대의 본뜻은 “절대자가 베푸는 환대”로서 환대의 반대쪽 면에 적대가 절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Derrida 2000[1997]). 절대적 환대는 절대자의 적대적 환대를 인류학적 환영으로써 유비해 만들어 낸 오독의 덧이다.

주인장의 정체성이 그대로 술집의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성급한 일반화를 시도해도 사실상 큰 무리가 없다. 무심코 길을 걷다가 “○○네 집”과 같이 대놓고 주인장의 실제 이름을 간판으로 내건 술집을 발견해 출입의 호기심이 발동한다면 아마도 그 공간에 대한 주인장의 애착이 상당할 것이고 그 주인장의 공간에 들어서는데 자체가 명목상 술을 핑계 삼아 사실상 그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주인장과 매우 직접적인 관계를 개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술집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일대일 대응을 넘어 다양해진다. 업종의 특성상 아무리 규모가 작은 술집일지라도 주인장 혼자 모든 노동을 오롯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인의 범주를 문자 그대로 주인인 소유주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면 술집을 찾은 손님이 술 한 잔 사 마시기 위해 맺어야 할 관계들의 가짓수가 늘어난다.

앞서 언급한 연남동의 작은 술집도 주인장 혼자 손님들을 환영하기에는 늘 손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친구 같은 종업원을 곁에 두고 여러 손으로 에너지를 분산시킨다. 개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이러한 술집의 경우 특히 종업원과 주인장의 취향이 서로 비슷해야만 스타일의 손발이 맞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곳에 처음 발을 들인 손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둘 중에 누가 주인장이고 누가 종업원인지조차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 대략적인 사실이다. 술집의 도시적 환영은 주인장과 닮은 다른 종업원이 주인장과 함께 주인으로 거듭나며 아직 주인장과 닮지 않은 다른 손님들을 시나브로 주인과 닮은 다른 손님으로 길들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덧의 야생적 환영

덧은 사냥의 한 종류다. 사냥의 디폴트인 추격이 야생에서 굶주린 보편적 짐승들에게 육체적으로 동등하게 주어진 고달픈 생존 기술이라면 사냥의 파라미터인 덧은 야생의 인류가 문명의 사피엔스로 둔갑해 다른 짐승들의 습관적 굶주림을 기술적으로 농락한 사상 최초의 자동 기계다(Lips 1947: 74-87). 길들여지지 않은 사냥감의 감각적 행동과 심리적 호불호를 중력과 기계적 탄성의 기발한 조합으로 예측해 덧으로 유혹한 야생의 사냥꾼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발명가다(Mason 1900: 657-660).

덧은 사냥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용맹한 사냥꾼의 민첩한 추격을 위한 창이나 도끼처럼 그저 도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덧의 도구는 가볍게 들고 빠르게 뒤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두고 감쪽같이 사라지는 데 있다. 덧은 사냥감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비극적 패러디이자 사냥꾼의 지적 능력을 예술적으로 사물화한 작품으로서 두 기호 사이의 원격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Gell 2006[1996]: 197-203).⁴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무언지에 따라 소통의 매개물도 달라진다. 그 옛날 셰익스피어의 세계관을 연극적으로 대변한 데키우스는 이미 이 덧의 기표적 원리를 간파했는지 카이사르의 암살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니콘은 나무로 곶은 거울로 코끼리는 구덩이로 사자는 올가미로 사람은 아침으로 사로잡는 것이다(Shakespeare 1599, Mason 1900: 657 재인용). 그리고 보니 덧의 메커니즘은 미학적으로 비극의 서사와 닮았다.

4 생각하기 때문에 함정에 잘 빠지지 않는 침팬지를 덧으로 잡기 위해서는 덧에 관한 침팬지의 생각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덧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예술작품이 작동하는 원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덧에 설계된 치밀한 공백이 사냥꾼과 사냥감의 서로 다른 굶주림을 원격으로 연결하듯이 예술작품에 새겨진 잠재적 의미는 예술가와 관객의 서로 다른 미적 욕망을 동일한 현실의 평면 위에서 상호주관적으로 해소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땃은 사냥꾼과 야생 동물 양쪽 모두에게 무언가 흥미로운 마주침의 사건을 기대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투기적인 것이기도 하다(Gell 2006[1996]: 199-200; 홍성훈 2017). 투기의 조건은 굶주림이고 성공의 결과는 포식이다. 상황을 압축한 개념의 도식은 간단하다. 땃을 매개로 사냥꾼과 야생 동물이 서로의 피를 교환한다. 하지만 개념을 구성하는 차원들이 얽혀 있는 양상의 걸을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냥꾼과 야생 동물이 공유하는 굶주림의 환영이 서로 다른 방향과 방식으로 복잡하게 땃에 투사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구적으로 기록된 온갖 신화를 구체적 과학으로 재조립한 레비-스트로스에게도 땃은 흥미로운 사고 실험의 소재였다.

히다차족은 구덩이에 숨어서 매를 사냥한다. 매가 구덩이 위에 놓인 먹이에 끌려서 지상에 내려오는 순간 사냥꾼은 재빨리 맨손으로 그것을 잡는다. 이 방법은 일종의 역설적인 면을 보여준다. 즉 사람이 땃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사람이 땃에 걸린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동시에 사냥꾼이 되고 또 사냥감이 되어야 한다. 동물 중에 이 모순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소리뿐이다. 그 높은 자신을 노획하기 위해 땃이 처지는 것을 조금도 겁내지 않을 뿐더러 사냥꾼의 노획품을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걸려들 땃을 빼돌리는 짓도 하면서 사냥꾼과 대적한다.

(레비-스트로스 2005[1962]: 113)

땃 그 자체는 사냥꾼도 아니고 야생 동물도 아니지만 한쪽 방향에서 사냥꾼의 섬세한 의도를 닮은 땃은 다른 쪽 방향에서 야생 동물의 습관적 행동을 닮았다. 생명을 직접 교환하지 않더라도 땃에 표시된 부채를 통해 사냥꾼과 야생 동물은 서로 닮은 다른 존재를 지연된 시간 속에서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히다차족의 매 사냥꾼은 특이하게도 매의 먹잇감과 매를

www.kci.go.kr

잡기 위한 덫으로 연달아 변신을 해야 겨우 매와 투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투기가 성공하면 사냥꾼은 사실상 매가 되어 매의 먹잇감으로 변신해 숨어있던 지하와 매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천상을 연결한다. 히다차족에게 매는 그만큼 귀한 천상의 것이다. 결과적으로 덫의 위치는 히다차족의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인 지하와 천상을 비롯한 온갖 대칭축들의 집합적 교차점으로 확인된다(Corsín Jiménez 2021: 115-116). 오소리는 단지 그 질서에 예외적으로 아랑곳하지 않을 뿐이다.

덫 그 자체가 역설의 발생적 기호라면 덫에 설계된 공백은 사냥꾼의 굶주림과 기다림이 원초적으로 충돌하는 마술적 시공간이다. 여우를 잡기 위해 막대기로 지지해 놓은 낙하 장치나 꿈을 잡기 위해 통나무 사이에 방아쇠를 달아 놓은 커다란 고리처럼 당장의 굶주림을 미래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사냥꾼은 눈앞에 없는 사냥감의 자발적 행동을 자극하는 설득의 기술을 덫에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Seaver 2019: 425-426). 포획의 순간은 곧 포식의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 거주하는 바라사나족에게 나뭇가지로 만든 낚시대는 동물의 왕국에서 조용히 헤엄치던 물고기를 갑자기 나뭇가지에 달린 먹음직스러운 과일로 변하게 만드는 신비한 물건으로 인식된다(Gell 2006[1996]: 207). 굶주림의 무한한 시공간을 텅 비워둔 기다림이 갑작스런 포획으로 압축되는 바로 그 절정의 무한소에서 눈앞에 절대로 없던 상상의 사냥감이 눈앞에 정말로 있는 현실의 음식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덫의 마술적 비전은 사냥감의 포획을 위한 기술적 기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마술은 노동이라는 소모적 행위 안으로 기술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관적 비용을 영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이상적 수단이다(Gell 2006[1992]: 179-182).⁵ 모름지기 훌륭한 사냥꾼이라면 덫의 기술적 불확실성

5 기술에 황홀(enchantment)을 사회적으로 덧댄 마술은 예술과 본성상 다르지 않다(Gell 2006[1992]: 162-163). 사냥감을 마술적으로 유혹하는 황홀한 덫은 유비적으로 예술작품

을 마술적으로 길들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파푸아뉴기니 케레마 지역의 앙카베족에게 신화적으로 귀한 장어 낚은 치열한 낚시의 현장에서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급류에 휩쓸려 버리기 일췌지만 마술가적 사냥꾼은 오히려 이 반복적인 실패의 과정을 통해 장어가 뿔어내는 생명력을 상상으로 가두고 실제로 조종할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포획한다(Lemonnier 2012: 58). 그리고 이때 낚은 기술의 한계를 마술적으로 넘어 생태 그 자체가 된다(Corsín Jiménez and Nahum-Claudel 2019: 395). 훌륭한 사냥꾼의 마술적 낚은 그저 사냥감을 분류하고 모방하는 데 갇혀 버리는 비교적 모델이 아니라 사냥감을 둘러싼 자연적 환경과 신화적 세계를 연결하며 확장하는 유비적 발명인 것이다.

5. 낚과 닮은 다른 술집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어느 지하에 숨어 있는 “△△△△”은 옛날 가요를 전문적으로 틀어주는 술집이다. 유행을 선도하는 젊음의 예술지구이자 유흥지구로 손꼽히는 동네 어느 모퉁이에 전략적으로 자리 잡은 이후 코비드19 대참사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몇 차례의 이주에도 아랑곳없이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술에 음악을 섞어 마시려는 온갖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빨아들이 이곳의 황홀한 이미지는 빨아들이는 사람과 빨아들여진 사

이다. 조금 복잡하게 말해 예술작품은 사회화된 개인들의 지향성으로 얽혀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인간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 체계의 일부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세계를 황홀의 형식으로 보게 만든다. 쉽게 말해 예술작품은 기술적 뛰어난이 사회적으로 황홀감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체계의 생산물이다. 현대적인 미술관에 전시된 예술작품이든 자연의 먹이사슬을 교란하는 야생의 낚이든 화성으로 날아갈 실험실의 우주선이든 가릴 것 없이 숙련된 기술의 탁월함을 실증하는 황홀한 작품은 모두 미술의 수준에서 동등하게 유비될 수 있다.

www.kci.go.kr

람 사이에 암묵적으로 그어지는 예리한 구별의 선을 반복적으로 지우며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킨다.

사건적 상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2013년의 새해를 맞이할 무렵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전부터 이미 실명의 독점적 소유권을 넘어선 익명의 공공성이 사분오열하던 이곳의 지하 출입구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주인장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쓴 대자보 형식의 공지가 커다랗게 붙어 있었다.

드리는 말씀: 본디 10년 전 △△△△은 흔히 들을 수 없지만 익숙한 양질에 가까운 가요를 제공코자 시작한 가게입니다만, 언제부턴가 단순히 춤을 추기 위해서나 사교의 장으로만 인식되는 상황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금년부터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심정으로다 90년대 댄스뮤직을 가급적 배제하여 여타 다른 가게와 차별화를 두려합니다. 단순히 춤을 추기 위해 오시는 분이시면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여기는 댄스홀이 아니라서요. 많은 양해 바랍니다.

(△△△△ 2013)

거리에 즐비한 온갖 가게들 중 하나일 뿐인 술집을 두고 “90년대 댄스뮤직이 흘러나오는 댄스홀”로 과소비하려는 수많은 이름 모를 손님들과 “흔히 들을 수 없지만 익숙한 양질에 가까운 가요”로 나름의 음악가적 자존심을 세워 보려는 고독한 주인장이 팽팽히 맞서 벌이는 기 싸움은 그저 사적 소유물일 뿐인 술집의 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열어 놓는 순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영의 딜레마다. 하지만 순간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명백한 술집이 단번에 공공장소일 수는 없으니 대자보 사건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절대 우위를 점하는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밀어내며 딜레마를 조종하는 주인장의 묘책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www.kci.go.kr

우선 주인장이 직접 하나하나 정성껏 쌓아 올린 이 술집 특유의 물질성에서 묘책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 1950년대부터 2000년대를 아우르는 거의 모든 가요 레코드의 방대한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잡스러운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가구, 간판, 포스터, 조명, 거울, 그릇, 가전기기, 오디오기기 등의 원시적 브리콜라주는 당최 그 분류체계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도 신비로운 질서를 유지하며 다른 보통의 술집에서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원본의 진한 기운을 뿜어낸다.

다음으로 종업원들이 흥에 취한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돌아다니며 주인장의 불량한 작가 정신을 몸소 실천한다. 임시의 돈벌이를 위해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곳의 알바들은 언뜻 보기에 주어진 술과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르기만 하는 매우 수동적인 서비스 노동자에 불과한 것만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예술과 유흥의 동네에서 진하기로 유명한 이 술집의 음악과 분위기가 좋아서 알음알음 찾아온 의지적 인물들이고 그들에게 알바는 단순히 시급 얼마의 금전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예술가적 상징자본을 스스로 채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손님들에게 신청곡을 받되 각자 개성껏 음악을 골라 틀어 주는 디제이들이 주인장의 고독한 작가 정신에 느슨한 연대의 힘을 실어 준다. 굳이 계보를 추적하면 과거의 신촌이나 명동의 음악다방에 가닿는 주인장의 덕후적 초능력은 그러저럭 꾸준하게 디제이들에게 전수되어 “흔히 들을 수 없지만 익숙한 양질에 가까운 가요”를 자연스럽게 선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로 체화된다. 결과적으로 디제이들은 자신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손님들의 취향에 부합하는 음악을 주로 선곡하는 선순환 고리를 요령껏 만들어 은연중에 주인장과 종업원들 모두가 공유하는 물질성과 지향성에 대립하는 손님들을 우회적으로 밀어낸다.

주인장과 종업원을 아우르는 주인의 범주 못지않게 손님의 범주도 다양한 인물들의 복잡한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시간을 기준으로 자

주 오는 손님과 그러지 않는 손님을 나눈 다음 주인과 친밀한 정도를 기준으로 익숙한 손님과 그렇지 않은 손님을 나누기만 해도, 자주 오는 익숙한 손님, 가끔 오는 익숙한 손님, 자주 오는 서먹한 손님, 가끔 오는 서먹한 손님, 총 네 부류를 식별해낼 수 있다(Katovich and Reese 1987: 313-314). 그중에서 특히 방문이 잦고 주인장이나 종업원들과 친밀한 정도가 높은 이른바 단골은 단순 대립항처럼 보이는 주인과 손님 사이를 가로지르는 독특한 범주다(Lee et al, 2008: 79-83).

언제든 편하게 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단골들은 분명 손님이지만 마치 주인인 듯 행세하며 술집의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 하지만 단골의 자리는 모든 손님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의 눈치로 요령껏 구축하고 성취해야 할 경쟁적 과정의 성과물이다. 그래서인지 단골들은 명목상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탓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뒤섞이며 취기를 내뿜는 무질서한 흐름 속에서 굳이 들일 사람과 내칠 사람을 구별하면서 그들에게 익숙해진 공간의 질서를 보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로 △△△△의 단골(regular)들은 영어 문자 그대로 이 술집을 매우 규칙적으로 드나들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90년대 댄스뮤직이 흘러나오는 댄스홀”과 “흔히 들을 수 없지만 익숙한 양질에 가까운 가요”의 미학적 대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하려 노력한다. 앞서 언급한 대자보 사건의 원인은 표면적으로 주인장과 자주 오는 서먹한 손님들 사이의 대립이지만 실제로는 주인장과 종업원들 모두가 공유하는 물질성과 지향성에 스스로를 길들인 손님들과 그러지 않는 손님들 사이의 대립이기도 하다.

차원을 달리하면 술집 밖을 떠도는 술집의 이미지가 있고 술집 안에 이미지를 소비하는 손님들의 술집이 있고 또 그 술집 안에 이미지를 생산하는 단골들의 술집이 있는 셈이다. 훌륭한 주인장의 황홀한 술집은 그저 뜨내기손님에게 술 한 잔 팔아 푼돈 챙기는 데 혈안이 된 비즈니스 모델이

www.kci.go.kr

아니라 주인장과 닮은 다른 종업원들과 닮은 다른 손님들이 함께 주인으로 거듭나며 서로의 관점을 환영하는 유비적 관계의 원천인 것이다.

6. 술집과 닮은 다른 덧

도시의 술집은 유비적으로 야생의 덧이다.⁶ 이 덧은 주인과 닮은 다른 사냥꾼의 굶주림을 손님과 닮은 다른 사냥감의 공백으로 표시하고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두 생명체의 원격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주인과 손님의 관계와 사냥꾼과 사냥감의 관계 사이의 내적 상동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술집 안팎으로 맺어지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인 비극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살벌한 야생의 사냥에서 관계의 성립은 곧 사냥감의 참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냥의 드라마가 사냥감에 대한 사냥꾼의 비대칭적 포식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히다차족의 매 사냥이나 앙카베족의 장어 낚시에서 사냥감은 사냥꾼의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한 당장의 먹잇감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유비적 상황에서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서로 교환 불가능한 용어들의 직선적 연결 위에 성립된 일방적 관계인 것은 분명하다. 술집이 덧의 형식으로 설정되는 한 주인이 비워둔 자리에 찾아오는 손님은 늘 사냥감으로 희생될 뿐이다. 주어는 주인이고 목적어는 손님이다. 주인이 손님을 낚았다. 설령 수동태로 형식을 변환해 손님을 주어로 등장시킨다 해도 승리는 언제나 손님의 몫이 아니다. 손님이 낚였다.

6 도시를 민족지적으로 연구하는 오늘의 인류학자가 야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하지만 유비의 마술을 활용하면 동시대 도시의 현장과 태곳적 야생의 상황도 얼마든지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인류와 인류 사이의 복잡한 관계들을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이해하려 했던 총체적 “모던 앤쓰로폴로지”의 중요한 어젠다는 바로 이러한 연결에 대한 고민 자체다(Boas 1896).

주인과 손님의 명목적 관계 사이에 내재된 긴장은 필연적으로 위계의 문제를 낳는다. 어쩌면 덧이라는 투기적 장치는 그 자체가 위계를 생산하기 위한 포식의 도구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주어와 목적어를 통제로 뒤집어 흔들어 볼 수는 없을까?

주인과 손님의 명목적 관계 안에 자동으로 설정된 힘의 차이는 마침 절대적 환대를 대화적으로 해체하는 현대적 사변에서 수동으로 반복되는 고전적 테마와 유비적으로 동일한 곳을 가리킨다(Derrida 2000[1997]). 법 밖의 인간은 법에게 인격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방인은 절대자에게 환대를 요구할 수 있는가? 요구는 둘째 치더라도 물어볼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어떠할까? 내친김에 제대로 물어보면 어떠할까? 만에 하나보다 작은 확률 이긴 하지만 유비적 물음의 덧에 걸린 절대적 환대 안에서 주어의 권위는 처음으로 뒤집히고 흔들리며 있지도 없지도 않은 흔적의 상태로 변태한다. 결과적으로 법 밖의 인간에 대한 절대자의 환대는 권리의 형식 안에서 환대도 적대도 아닌 환대-적대로 기록된다. 사회를 사회화하는 텍스트 안의 개념인 “the social”이 명사 아닌 것을 명사인 것으로 고정된 것이라면 텍스트 바깥의 제목인 “_of hospitality”는 명사인 것을 명사 아닌 것으로 해체한 것이다. 환대를 태워 재생한 에너지가 “of”를 지렛대 삼아 딱딱했던 명사의 자리를 따뜻하게 비워두니 아직 명사로 굳어지지 않은 새로운 단어가 환영될 갖가지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덧과 닮은 다른 술집에서는 누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우선권은 주인장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익명의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에서 술집의 에테르를 지휘하는 주인장의 태도는 사변 속에서 해체되는 절대적 권위자의 뺨뺨함과 매우 다르다. 멀쩡한 사람에게 술의 주문을 걸어 실제 세계를 황홀의 형식으로 보게 만드는 환영의 권위자는 술집 안팎의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한 주홍의 덧을 여기저기 펼쳐 놓느라 정신이 없다. 술에 취해 흐늘거리는 권위는 있어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석한 사냥꾼이 냉철하게 사냥감을 낚아챈 후 올바른 위계의 절대성을

www.kci.go.kr

확인하며 홀로 포효한다면 술에 취한 주인장은 황홀하게 손님들을 끌어안은 후 방정맞은 위계의 상대성을 다 함께 확인한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호혜적 술판에서 손님과 주인의 명목적 구별은 일시적으로 흐려지고 주어와 목적어의 자리는 건배의 횃수만큼 교환된다. 일방적인 환대나 적대는 없다. 도시의 술집과 야생의 뒷을 유비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계의 문제는 수시로 주객이 전도되는 황홀한 술집과 닮은 다른 뒷에 낫인 후 다음과 같은 대답을 뱉어 낸다. 주인이 손님과 취했다. 혹은 손님이 주인과 취했다.

주인 같은 손님들이 주인 같지 않은 주인장과 함께 취하는 현실의 시공간적 조건은 연남동의 상업적 부흥을 영겁결에 주도한 골목에서 10년 가까이 동네 음악인들의 놀이터로 기능하고 있는 어느 간판 없는 술집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변의 영역 안에서도 만에 하나보다 작은 확률로 발생하는 줄 알았던 절대자의 유비적 해체가 어떻게 현실의 도시에서 가능하고 심지어 버젓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우선 공간적 조건을 살펴보자. 자동차가 다니기 힘든 골목의 시작 혹은 끝에서 동교동과 연희동을 연결하는 이차선 도로와 만나는 모서리 건물 지하에 세를 얻은 이 술집의 물리적 입구는 두 개다. 하나는 이차선 도로를 바라보는 건물 전체를 오르내리는 계단으로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 들어선 좁은 골목길에서 오직 지하로만 연결된다. 생존의 경쟁이 치열한 유흥지구 한복판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사람과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큰길로 연결되는 입구를 정문으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상식적으로 없다. 하지만 애초부터 간판을 달지 않아 상식에 어긋나는 이 술집의 선택은 정문과 후문의 역할을 때에 따라 교환하거나 그 구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두 개씩이나 뚫려 있는 입구를 단속하는 문은 잠겨 있지 않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다. 간판도 없고 앞뒤도 분명하지 않은 채 열려 있는 공간적 조건에서 주인장의 권위가 어떠한지는 둘째 치고 주인장의 자리가 어디인지부터 알아채기 쉽지 않다.

술집 안의 공간적 조건도 상식에 어긋나기는 마찬가지다. 주인과 손님
 이 술을 직접 주고받는 바, 디제이가 음악을 트는 부스,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는 무대가 각각 한쪽 모서리를 채우고 있을 뿐 손님들의 편의를 위
 한 식탁과 의자가 놓여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 가운데 공간은 정작 텅 비
 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앉을 자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흩어져 있는
 의자나 나무상자를 요령껏 배열해 각자의 술자리를 알아서 만들면 된다.
 특별한 손님으로서 응수한 대접을 기대하거나 확실한 규칙 안에서 안정
 감을 얻는 문명인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브리콜
 라주에 능숙한 야만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이 자연스럽다. 바에
 붙어 앉아서 바로 술을 받아 마시든 가운데 빈 공간으로 옮겨 스스로 자리
 를 만들어 서서 마시든 앉아서 마시든 상관없다. 쉬고 싶으면 그냥 바닥에
 잠시 누우면 그만이다. 결코 없지 않은 주인장이 사유하는 술집 안에 주인
 같은 손님들이 공유하는 술집이 있는 셈이다.

공간의 가변적 구조는 이 술집을 주로 드나드는 음악가들의 자유롭고
 즉흥적인 삶의 리듬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공식적 영업일
 인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음악 이벤트가 술집의
 텅 빈 공간을 자율성과 다양성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디제이가
 음악을 틀고 어떤 날은 밴드가 연주를 하고 어떤 날은 수다쟁이들이 모여
 토크쇼를 벌이고 어떤 날은 별일이 없다. 주인 같은 손님들이 개최하는 잡
 다한 이벤트의 주제에 따라 놀러오는 손님들의 스타일이 달라지니 술집
 전체의 분위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거나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
 만 겸손한 주인장이 반듯한 권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황홀한 기술로 10년 가까이 번듯한 손님들을 친구처럼 끌어들이고
 있는 노련한 주인장이듯이 이 술집의 즉흥적이고 다채로운 분위기를 포
 괄하며 지속되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기는 있다. 주인 같지 않은 주인장과
 주인 같은 손님들은 모두 술과 어울리는 새로운 음악 실험에 항상 굽주려
 있는 사냥감이자 사냥꾼이다. 공간의 가변적 구조는 음악가적 삶의 리듬

을 술과 함께 실험하기 위한 도시적 조건이기도 하다. 공간과 시간을 비움으로써 지속 가능한 음악 실험의 덧이 주인장의 술집과 닮은 다른 덧 하나에 다시 손님들의 술집과 닮은 다른 덧 여럿을 놓는 셈이다.

술집의 주인과 손님이 오랫동안 함께 연마한 각종 마술의 복잡한 네트워크는 불확정적인 바깥의 거리를 오고가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을 향해 펼쳐놓은 덧이다. 만약 술집과 닮은 다른 덧이 몇몇 사람들을 홀려 포획하는 데 성공하면 포획된 사람들은 덧과 닮은 다른 술집 안에서 술과 함께 주인스럽게 길들여질 것이다. 술집의 주인장이 애초에 구상한 이미지 안에서 현실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손님들은 이제 더 이상 도시의 낯선 거리를 배회하는 익명의 아무개가 아니다. 주인 같은 손님들은 익숙한 주인장과 닮은 다른 주인 같은 손님들과 함께 술집 안팎으로 주인스럽게 닮은 다른 인류로 계속 거듭난다.

7. 유비의 인류학적 환영

유비의 상상력은 새로운 유비를 낳는다(Jones 2017: 125-131). 필연적으로 개연적일 수밖에 없는 유비의 한계를 환영하면 서로 다른 것에서 닮은 것을 꿰뚫어 연결하는 유비의 독특한 창의력이 솟아난다. 하늘의 별을 따기 위해 굳이 야생의 덧을 끌어들이 필요는 없지만 유비를 경유할 경우 사냥꾼과 사냥감의 사고는 평평하거나 둥근 지구를 벗어나 한층 더 자유로워진다. 하늘에 떠 있는 별에서 덧의 작동을 볼 수 있고 덧의 기술에서 술집의 마술을 볼 수 있으니 술집과 우주선의 유사성을 꿰뚫어 엮어내는 시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류학적 유비는 현장의 구체성과 이론의 추상성을 교차적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투기적 과학에 관한 원시적 실험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성실하게 수집한 자료를 가지런하게 정리하는 차원을 간신히 넘어서는 인

류학적 이론화는 대개 현장의 지역성을 공유하는 민족지들에 적용된 여러 이론들을 주제별로 수집해 부지런하게 정리하는 차원에 머문다. 하지만 현장에 대한 관심이 공유된다고 해서 이론에 대한 관심까지 반드시 공유될 수는 없다. 나아가 그 이론들이 현장으로부터 직접 추론된 것이 아니라 추상의 수준이 높은 보편 이론의 단순 적용이라면 현장을 공유하는 연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얼핏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현장과 이론에 대한 관심의 끈을 모두 유지하려는 인류학의 태생적 한계 같아 보인다. 하지만 거꾸로 보고 뒤집어 생각하면 그 모순적 상황에서 발휘되는 유비적 사고의 창의력은 하나의 현장과 다른 현장을 연결하고 하나의 이론과 다른 이론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과 여러 이론을 다차원적으로 교차해서 연결할 수 있는 인류학적 환영의 본래적 가능성이다. 사람이 사람을 환영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생각이 생각을 환영하면 생각들이 생각들을 환영한다.

도시의 술집과 야생의 텃을 인류학적으로 유비해보는 오늘의 실험은 이러한 유비적 사고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것으로 상상되는 인류학적 태제에 애초부터 잠재되어 있던 것으로 가정한다. 인류학은 왜 여기에 항상 있는 나를 굳이 낯선 곳에서 만나자고 선언할까? 한 무리의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겨지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견주어 그보다 커다란 보편의 무리로 연결하려는 학문적 필요성이 인류학의 원동력이 아닐까? 사람과 사람은 무리로 엮일 때 비로소 인류가 될 수 있다.

논문투고 2023.04.25., 논문심사 2023.05.16., 게재확정 2023.12.10.

참고문헌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 레비-스트로스, 클로드(안정남 역), 2005[1962], 『야생의 사고』, 파주: 한길사.
- 로이드, 제프리(이경직 역), 2014[1966], 『양극과 유비: 초기 그리스의 사유에 나타난 두 가지 논증 유형』, 서울: 한국문화사.
- 전경수, 1993, “비교의 개념과 문화비교의 적정수준,” 『비교문화연구』 1(1): 1-29.
- 홍성훈, 2017, 『몸 투기: 사람들은 왜 굳이 때리고 맞아가면서 권투를 하는가?』, 서울: 이학사.
- Boas, Franz, 1896, “The Limitations of the Comparative Method of Anthropology,” *Science* 4(103): 901-908.
- Corsín Jiménez, Alberto, 2021, “Anthropological Entrapments: Ethnographic Analysis Before and After Relations and Comparisons,” *Social Analysis* 65(3): 110-130.
- Corsín Jiménez, Alberto, and Chloe Nahum-Claudel, 2019, “The Anthropology of Traps: Concrete Technologies and Theoretical Interfaces,” *Journal of Material Culture* 24(4): 383-400.
- Daston, Lorraine J., 1984, “Galilean Analogies: Imagination at the Bounds of Sense,” *Isis* 75(2): 302-310.
- Derrida, Jacques, 2000[1997], *Of Hospitality*, translated by Rachel Bowlb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Dumont, Matthew P., 1967, “Tavern Culture: The Sustenance of Homeless M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7(5): 938-945.
- Evans-Pritchard, Edward. E., 1976[1937], *Witchcraft, Oracles and Magic among the Azande*, Oxford: Clarendon Press.
- Finnegan, Ruth, 2007[1989], *The Hidden Musicians: Music-making in an English Tow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Gell, Alfred, 2006[1992], “The Technology of Enchantment and the Enchantment of Technology,” In Eric Hirsch (eds), *The Art of Anthropology: Essays and Diagrams*, New York: Berg.
- _____, 2006[1996], “Vogel’s Net: Traps as Artworks and Artworks as Traps,” In Eric Hirsch (eds), *The Art of Anthropology: Essays and Diagrams*, New York: Berg.
- Grazian, David, 2003, *Blue Chicago: The Search for Authenticity in Urban Blues Club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sse, Marry B., 1961, *Forces and Fields: The Concept of Action at a Distance in the*

- History of Physics*, London: Nelson.
- Hirsch, Eric, 2014, "Melanesian Ethnography and the Comparative Project of Anthropology: Reflection on Strathern's Analogical Approach," *Theory, Culture & Society* 31(2/3): 39-64.
- Jones, Graham M., 2017, *Magic's Reason: An Anthropology of Ana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tovich, Michael A., and William A. Reese II., 1987, "The Regular: Full-time Identities and Memberships in an Urban Bar,"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16(3): 308-343.
- Lee, Juliet P., Tamar M. J. Antin, and Roland S. Moore, 2008, "Social Organization in Bars: Implications for Tobacco Control Policy," *Contemporary Drug Problems* 35(1): 59-98.
- Lemonnier, Pierre, 2012, "Entwined by Nature: Eels, Traps, and Ritual," in *Mundane Objects: Materiality and Non-verbal Communication*, 45-62,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 Lévi-Strauss, Claude, 1991[1962], *Totemism*, translated by Rodney Needham, London: Merlin Press.
- Lips, Julius E., 1947, *The Origin of Things*, New York: AA Wyn.
- Lloyd, Geoffrey. E. R., 2017, "Fortunes of Analogy," *Australasian Philosophical Review* 1(3):236-249.
- Mason, Otis, T., 1900, "Traps of the Amerinds: A Study in Psychology and Invention," *American Anthropologist* 2(4): 657-675.
- Oldenburg, Ray, 1999[1989], *The Great Good Place: Café, Coffee Shops, Bookstores, Bars, Hair salons, and Other Hangouts at the Heart of a Community*, New York: Marlowe.
- Park, Katharine, Lorraine J. Daston, and Peter L. Galison, 1984, "Bacon, Galileo, and Descartes on Imagination and Analogy," *Isis* 75(2): 287-289.
- Richards, Cara E., 1963, "City Taverns," *Human Organization* 22(4): 260-268.
- Ruse, Michael, 1973, "The Value of Analogical Models in Science," *Dialogue: Canadian Philosophical Review* 12(2): 246-253.
- Seaver, Nick, 2019, "Captivating Algorithms: Recommender Systems as Traps," *Journal of Material Culture* 24(4): 421-436.
- Strathern, Marilyn, 1992, "Future Kinship and the Study of Culture," In *Reproducing the Future: Essays on Anthropology, Kinship and the New Reproductive Technologi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Tambiah, Stanley J., 2017[1973], "Form and Meaning of Magical Acts," *HAU: Journal of Ethnographic Theory* 7(3): 451-473.

Wirth, Louis,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1-24.

〈자료〉

노블레스, 2018.10.31., "단골집 Part.1", <http://www.noblesse.com/home/news/magazine/detail.php?no=7871> (2021.01.01. 검색).

An Anthropological Analogy between Urban Pubs and Savage Traps

HONG, Sung-Hoon*

This essay aims to anthropologically propose and prove the alluring operational principles shared between savage traps and urban pubs via analogy. Although analogy is often misunderstood as the mode of thought of primitive pre-scientific societies, its inevitable fallibility paradoxically has potentiality to open a new frontier between magic and science. The emptiness designed in a trap is a magical spatiotemporal zone where the primal hunger of the hunter and the prey speculatively collides. In the moment of capture, the emptiness disappears, and the two different living things transform together into analogues of each other. By creatively drawing this logic of the wild into the city, it becomes possible to elucidate the reason behi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action at a distance of traps and the survival tactics of urban pubs. In the psychedelic atmosphere of the pub which opens its doors to streets full of uncertainty, people with different paths of life transform into similar beings by the magic of alcohol.

〈Keywords〉 analogy, city, savage, pub, trap, magic, science

* Anthropology Lecturer, Samsung Art and Design Institute(SADI),
why@anthropology.city